총평

2022년 국가직 9급 시험이 끝났습니다. 모두모두 시험 보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이번 시험은 문법 6문제, 문학 4문제, 비문학 6문제, 한자(사자성어 포함) 2문제, 화법과 작문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문법 문제가 2문제 늘어 전반적인 균형감은 작년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난도가 그리 높지 않아서 85~90점이 상위권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답 및 해설

1. ③

‘씩다’의 사동사로서, ‘걱정이나 근심 따위로 마음이 몹시 괴로운 상태가 되게 만들다.’의 의미인 ‘씩이다’를 써야 한다.

①, ④ 물건이나 사람 또는 사람의 재능 따위가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내버려진 상태로 있게 하다. ‘씩다’의 사동사.

② 기물이 부패 세균에 의하여 분해됨으로써 원래의 성질을 잃어 나쁜 냄새가 나고 형체가 뭉개지는 상태가 되게 하다. ‘씩다’의 사동사.

2. ②

생각이나 소망대로 어떤 일 또는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한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가 ‘바라다’가 아니라 ‘바라다’이며, ‘바라다’를 명사형은 ‘바람’이다. 따라서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로 써야 한다.

‘결실을 맺다’를 의미 중복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 ‘결실을 보다’, ‘결실을 거두다’ 등으로 써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사전에 ‘결실을 맺다’의 표현이 실려 있으므로 문제로 나오면 상대적으로 푸는 방법이 옳다고 본다.

① (가) 많이 틀려 → 많이 달라

③ (다) 바라는 것은 ~ 좋겠어 → 바라는 것은 ~ 좋겠다는 거야

④ (라) 시련을 주기도 한다 → 인간에게 시련을 주기도 한다

3. ④

‘당랑거철(螳螂拒轍)’은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는 뜻으로, 자기의 힘은 헤아리지 않고 강자에게 함부로 덤빈다는 의미이므로 ‘신중한 태도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본문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문맥상, ‘호랑이같이 예리하고 무섭게 사물을 보고 소같이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뜻의 ‘호시우보(虎視牛步)’가 적절하다.

① 구곡간장(九 아홉 구/曲 굽을 곡/肝 간 간/腸 창자 장) 굽이굽이 서린 창자라는 뜻으로, 깊은 마음속 또는 시름이 쌓인 마음속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곡학아세(曲 굽을 곡/學 배울 학/阿 언덕(고개, 편들다, 영합하다, 알랑거리다) 아/世 인간 세) ‘학문을 굽히어 세상에 아침한다.’는 뜻으로, 정도(正道)를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침함을 이르는 말.

③ 구밀복검(口 입 구/蜜 꿀 밀/腹 배 복/劍 칼 검) 입으로는 달콤함을 말하나 뱃속에는 칼을 감추고 있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친절하나 마음속은 음흉한 것.

4. ③

지민은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에서처럼 공감하며 듣기와, ‘맞아’에서처럼 호응하며 듣기를 잘하고 있다. 그런데 ‘정수’는 면접 전략 강의 중 두 번째 내용이 더 인상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지민’은 ‘하긴 아이스크림 매출 증가에 관한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답변한 전략도 설득력이 있었어’라고

‘정수’의 견해를 존중한 후에 ‘초두 효과의 효용성’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① 지민은 정수를 설득하고 있지 않다.
- ② 지민이 정수의 약점을 공략하는 것도 아니며, 정수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지 않다.
- ④ 정수와 지민의 갈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5. ②

‘이는 필시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시어’라고 하였기 때문에 양소유 스스로 ‘성진’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는 말은 옳지 않다.

- ①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가 된 후 출장입상하고’
- ③ ‘인간 세상의 승상 양소유가 아니라 연화도량의 행자 성진임’
- ④ ‘자신의 몸을 보니 백팔염주가 걸려 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갓 깎은 머리털이 까칠까칠하더라. 완전한 소화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위위가 아니었으니, 이에 제 몸이 인간 세상의 승상 양소유가 아니라 연화도량의 행자 성진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6. ④

(라)는 조식의 작품으로서, 벼슬을 하지 않고 산중에서 은거하는 몸이라 임금의 은혜를 입은 바 없지마는 임금이 승하했다는 소식을 듣고 애도하는 마음을 적은 시조이다. 따라서 ㉠의 ‘히’는 ‘벗’이 아니라 승하한 ‘임금’을 의미한다.

- ① 이 작품은 유응부의 작품으로 단종이 즉위 후 숙부인 수양대군이 왕위 찬탈의 뜻을 품고, 정인지·한명회 등과 결탁하여 중신들을 죽이고 단종을 폐위시킨 계유정난을 풍자한 것으로, 작자가 그 비참한 사실을 한탄하며 읊은 작품이다. 따라서 ‘낙락장송(落落長松)’은 세조에 의해 ‘억울하게 해를 입은 충신들’을 의미한다.
- ② 이 작품은 이항복의 작품으로 광해군(光海君) 5년에 일어난 계축화옥(癸丑禍獄) 때 인목대비의 폐모론(廢母論)에 반대하다가 북청으로 유배되었을 때, 철령 고개를 넘으면서 지었다고 한다. 따라서 ‘남’은 구중심처(九重深處) 계신 임금. 여기서 광해군을 의미한다.
- ③ 이 작품은 계량의 작품으로 이별한 임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노래한 것이다. 따라서 ‘저’는 헤어진 연인을 의미한다.

7. ①

가름: ‘승부나 등수 따위를 정하는 일’을 뜻하므로 ‘가름’이 적절하다.
‘갈음’은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의 의미이다.

㉠ 부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놓은 범위나 갈래를 뜻하는 말이다. 문화·예술·학술 등에서 분야를 나누어 놓은 것은 모두 ‘부분’이라고 불러야 한다. 제조업 부문, 경공업 부문, 중공업 부문 등도 정해진 기준에 의해 인간이 분류해 놓은 것이므로 ‘부분’이라고 한다. 정부 부문, 공공 부문, 민간 부문, 해외 부문, 건설 부문 등도 마찬가지다.

‘부분’은 전체를 이루는 작은 범위 또는 전체를 몇 개로 나눈 것의 하나를 뜻한다. 따라서 ‘썩은 부분을 잘라 내다’, ‘이 글은 마지막 부분에 요지가 들어 있다’처럼 쓴다.

㉡ 구별: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 또는 그것을 갈라놓음’을 뜻하는 ‘구별’이 적절하다.
‘구분’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눔’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분을 짓다.’, ‘서정시와 서사시의 구분은 상대적일 뿐이다.’처럼 쓴다.

8. ②

(가) 친구가 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쳤다는 내용으로 청자의 주의나 관심을 환기하여 글을 시작하는 내용으로 동기화 1 단계이다. ⇒ (다) ‘여러분도 가끔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전거 사고라는 ‘특정문제’를 청자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동기화 2 단계이다. ⇒ (나)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청자의 이해를 유도하고 있으므로 동기화 3 단계이다. ⇒ (라) 헬멧을 착용한다면 자전거 사고를 당해도 뇌손상을 비롯한 신체 피해를 75% 줄일 수 있고, 자전거 타기가 주는 즐거움과 편리함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다며, 헬멧 착용이라는 해결 방안이 청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동기화 4 단계이다. ⇒ (마)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로, 구체적인 행동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여 특정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동기화 5 단계이다.

9. ④

두 번째 문단에 복지 공감 지도의 유용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복지 혜택에 대한 수급자들의 개별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① 첫 번째 문단, ‘복지 공감 지도’를 제작하고, 복지 기관 접근성 분석을 통해 취약 지역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② 세 번째 문단, ‘이 사업을 통해 ○○시는 그동안 복지 기관으로부터 도보로 약 15분 내 위치한 수급자에게 복지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③ 세 번째 문단, ‘이에 교통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복지 기관 방문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을 발견하고, 복지 셔틀버스 노선을 4개 증설할 계획을 수립했다’

10. ③

‘배꼽’은 일반적으로 ‘땃줄이 떨어지면서 배의 한가운데에 생긴 자리’를 가리키지만 바둑에서는 ‘바둑판의 한가운데’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므로,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되던 말이 일반화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 의미의 단어가 특수한 영역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① ㉠: ‘코’가 ‘콧물’의 의미로 쓰이면서, 한쪽(코)이 다른 한쪽(물)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변화하게 된 경우이다.
② ㉡: ‘수세미’라는 언어 표현은 그대로인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시 대상이 ‘식물의 이름’에서 오늘날에는 ‘그릇을 씻는 데 쓰는 물건’으로 의미 변화가 발생한 경우이다.

④ ㉔: ‘무섭다’는 심리적인 이유로 특정 표현을 피하려다 보니 ‘천연두’를 대신하는 단어인 ‘손님’의 의미에 변화가 생긴 경우이다.

11. ②

글쓴이는 빛 공해 문제에 대한 건의하는 글을 쓰며 ‘지나친 야간 조명이 식물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작물 수확량을 감소시킬 수 있음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에서 건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용한 자료를 사용하기는 했다. 그러나 출처를 밝히지는 않았다.

① ‘모쪼록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농장과 골프장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③ ‘또한 ○○군에서도 빛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 조명의 조도를 조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④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골프장의 야간 운영을 무조건 막는다면 골프장 측에서 반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 야간 운영 시간을 조정하거나 운영 제한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등의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12 ②

㉔에 쓰인 ‘저’는 화자와 청자에게 모두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따라서 ‘화자보다 청자에게 멀리 있는 대상’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㉑의 ‘이’는 화자에게 가까이 있거나 화자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관형사이다.

㉔은 청자에게 가까이 있거나 청자가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관형사이다.

③ ‘이진’의 “㉔저 책은 어때?”라는 질문에 ‘태민’은 “㉔그 책도 함께 읽어 볼게”라고 답한다. 따라서 ㉔과 ㉔은 같은 대상이다.

④ ㉔에서 ‘이진’이 사 주겠다는 말하는 ‘이 책 두 권’은 앞에서 말한 ㉔의 ‘그 책’과 ㉔의 ‘저 책’을 의미한다.

13. ④

세 번째 문단,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에서는 아동은 보호의 객체로만 인식되었을 뿐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 것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이다.

① 첫 번째 문단, ‘산업혁명으로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탄생한 근대사회에 이르러 구빈법에 따른 국가 개입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아동보호가 시작되었다.’

② 세 번째 문단 마지막과 네 번째 문단 처음,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를 토대로 2016년 「아동권리헌장」 9개 항을 만들었다.’

③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4. ①

이 작품은 ‘겨울’로 상징화된 분단의 현실을 넘어 ‘봄’으로

상징화된 통일에 대한 염원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을 초월한 순수 자연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②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③ ‘겨울’은 분단의 현실, ‘봄’은 통일의 시대, 남해와 북녘, 바다와 대륙 밖 등은 우리를 둘러싼 그 외부 세력을 상징한다.

④ ‘겨울’은 분단의 현실, ‘봄’은 통일의 시대를 나타내어 대립적으로 쓰이고 있다.

15. ④

선택지를 보면 (마)가 맨 처음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마)에서 ‘사회는 여러 사람이 그 뜻을 서로 통하고 의지하는 단체’라고 설명하고, (다) 말과 글이 없으면 서로 통할 수 없고, 서로 통하지 못하면 사회의 모습을 갖추 수 없다고 이어진다. 그리고 (나)에서는 (다)의 내용을 이어서 ‘이러므로 말과 글은 한 사회가 조직되는 근본’이며, ‘인민을 통합시키고 작동하게 하는 기관과 같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나)에서 말한 ‘이 기관’을 ‘잘 수리하여 정련하면~’으로 이어지고, (라)에서는 (나)의 내용에 더 추가하여 ‘그뿐 아니라’로 이어진다.

16. ③

③ 해결(解結) → 해결(解決)

① 만족(滿 찰(가득하다) 만/足(뿌리, 근본, 넉넉하다, 분수를 지키다, 만족하게 여기다) 발 족): ㉑마음에 흡족하다. ㉒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하다.

② 재청(再 두(재차, 거듭, 다시 한 번) 재/請 청할(요구하다, 바라다) 청): ㉑이미 한 번 한 것을 다시 청함. ㉒회의할 때에 다른 사람의 동의(動議)에 찬성하여 자기도 그와 같이 청함을 이르는 말.

④ 재론(再 두(재차, 거듭, 다시 한 번) 재/論 논할(논의하다, 서술하다) 론): 이미 논의한 것을 다시 논의함.

17. ④

제시된 문장의 앞부분에는 ‘신분에 따라 문체를 고착화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한다. ㉔의 앞 문장에서, 낭만주의 시기의 시민계급은 ‘문학에서~귀족에게만 전속시키고 하층민에게는~배정하는 전통 시학을 거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신분에 따라 문체가 고착화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㉔이 적절하다.

18. ①

① 현은 달라진 ‘박’의 태도가 자신의 작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현은 박의 그런 지긋지긋함에서 선뜻 자기를 느끼고 또 자기의 작품들을 느끼고 그만 더 울고 싶게 괴로워졌다.’

③ ‘전에 본 기억이 없는 새 빌딩들이 꽤 많이 늘어섰다.’

④ ‘그중에 한 가지 인상이 깊은 것은 어느 큰 거리 한 뿌다귀*에 벽돌 공장도 아닐 테요 감옥도 아닐 터인데 시뻘건 벽돌만으로, 무슨 큰 분묘와 같이 된 건축이 웅크리고 있는 것이다. 현은 운전사에게 물어보니, 경찰서라고 했다.’

19. ③

‘전세방(傳貰房)’은 [전세뺑]으로 발음하지만, 한자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따라서 사이시옷을 적지 않아 ‘전세방’으로 적는다.

- ① 우리말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 ② 우리말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 ④ 우리말과 한자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20. ①

① 세 번째 문단, ‘문화 전파의 기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는 밈 이론보다 의사소통 이론이 더 적절해 보인다’는 설명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② 네 번째 문단, ‘전파된 문화와 그것을 수용한 결과는 큰 틀에서는 비슷하더라도 세부적으로는 다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요크셔 지방의 푸딩 요리법은 다른 지방의 푸딩 요리법과 변별되는 특색을 지니는 동시에 요크셔 지방 내부에서도 가정이나 개인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푸딩 요리법의 수신자가 발신자가 전해 준 정보에다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기 때문인데,’

③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을 보면, 공동체 내에서 복제를 통해 확산되는 것은 ‘의사소통 이론’이 아니라 ‘밈 이론’이다.

④ 요크셔 푸딩 요리법이 요크셔 지방의 가정이나 개인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는 현상은 밈 이론이 아니라 의사소통 이론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